데스크시각

김 주 정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 하는 정권

교차로에서 빨강, 노랑, 녹색 화살표로 좌회전 여부를 지시하는 '3색 신호등'이 논란이다. 빨간 화살표를 기존 신호체계에 추가해 좌회전 금지를 확실히 강조하자는 취지였는데, 경찰청이 교통혼란을 자초한 꼴이 됐다.

광주에도 이런 곳이 있다. 광산구 첨단 보훈병원 앞 사거리다. 밤에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빨간색 좌회전 화살표 때문에 한참을 헤맸다는 하소연이다. 빨간색의 강력한 '통과금지' 신호를 따라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왼쪽으로 가라는 화살표 명령을 받게 되니 헷갈릴 수밖에.

제멋대로 '보선 민심' 해석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신호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제 입맛대로 4·27 재보선 민심을 해석하는 보수와 진보의 지루한 싸움부터 들여다 보자. 보수논객들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국가안보의식은 높아졌는데 여권의 민생(民生) 외면이 '분당우파'의 반란을 이끌었다고 난리다. 진보논객들은 이제 우리도 좌·우 이념 대결을 극복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특정 이념을 토대로 만든 강령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간 행동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데, '레드 콤플렉스의 나라'에서 이념 극복이 시작됐다는 호들갑도 그렇고, 젊은이들의 국가안보의식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우습다.

좌회전 깜박이 넣고 우회전하기는 이번 정부에서 하나의 유행이 된듯하다. 대통령 직속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운찬 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운찬 위원장이 "대기업은 50년간 성장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 이익의 일부를 동생격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내놓아야 한다"고 운을 띄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발끈했다. "경제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신호탄이었나.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 윤증현, 최중경 등 경제 관련 장관들이 들고 일어나 핏대를 세우며 손사래를 치는 웃지못할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다.

우파의 실질적인 보루라고 할 재벌기업이 '좌회전도 OK'라는 반대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대통령이 직할하는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이 꺼낸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카드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환영한다"고 반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가 높다"고 응수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벌기업 총수들이 5%도 안 되는 적은 지분으로 주주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인사권을 행사해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을 결정하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주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이 회장은 "공개적으로 주주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환영한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 회장이 현 정부의 경제성과에 "낙제는 면했다"고 답한 것 때문에 청와대를 분노케 한 것에 대한 유화책이라는 해석과 칼집의 칼만 보여줌으로써 재벌을 길들이겠다는 정부의 속내가 보인다는 해석이 덧붙여져 있기는 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도 오락가락이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재정을 불안하게 할 포퓰리즘이 횡행할 수 있다"며 대권주자들의 경쟁적인 복지레이스에 제동을 걸더니, 엊그제 라디오 연설에선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을 찾아내 보살펴야 한다"고 다른 말을 했다.

"눈속임일 땐 재앙"

무엇이든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의욕을 보여 온 그에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생긴 변화인지는 모르지만, 헷갈리는 신호를 보는 국민은 어지럽기 그지없다.

물론 이런 논란이 물가대란, 실업대란, 저축은행 부실사태 같은 정책실패를 만회하려는 변증법적 진화의 과정임을 믿고 싶다. '연기금 주주권 강화'만해도 순환출자 등 얽히고 설킨 지분 구성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재벌 관행을 깨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눈속임'에 그칠 때는, 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 교차로에선 운전자의 다음 행동은 럭비공 튀는 방향만큼이나 예측하기 어렵지 않겠나.

/여론매체부장 jjnews@kwangju.co.kr

은펜칼럼

역사가 교과서다

김 병 인

독일과 일본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침략국으로 전 세계인과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전후에 양국의 그 죄행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독일은 그 죄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고 배상에 충실했고, 또 이 부끄러운 역사의 한 부분을 교과서에 사실대로 실어서 후대를 교육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반대다. 전후 60년이 넘은 지금도 자기들이 저지른 죄행에 대해 반성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침략의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침략전쟁의 죄악을 부정하는 소수 정계 요인의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잘못된 전쟁관과 역사관이 일본 청소년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독일은 전후의 초대 수상 콘라드 아데나워부터 현재의 앙겔라 메르켈 수상까지 역대의 수상들이 일관되게 전쟁의 죄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나치의 만행은 독일의 수치라고 인정했다. 나치 독일이 유태인에 행한 죄행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유태민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독일 역대 정부의 중요한 외교 방침 중의 하나였다. 1970년대 초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방문 시 비가 오는 가운데 바르샤바 유태인전쟁희생자기념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체투지하면서 사죄함으로 국제사회에 독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은 더 이상 위험한 전범국가가 아니고, 전쟁을 반성하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배상하는 독일이며,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는 변모한 독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일본은 전후 역대 정부가 그 침략 전쟁에 대해 시종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전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점령정책의 변화에 따라 A급 전범 극소수만이 처벌되고 천황을 비롯한 A급 전범들이 모두 살아남은 일본은 전후 얼마 되지 않아 철의 삼각으로 불리는 정계, 재계, 군에 모두 복귀함으로써 전쟁전과 다를 바 없이 되었다. 따라서 전후 얼마 되지 않은 1940년대 말 '조선 경제의 발전은 일본이 지도한 결과'라는 스즈키 망언으로부터 1995년 '한일합방조약은 원만히 체결된 것으로 무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와타나베 망언에 이어, 2008년 '일본의 조선과 만주의 침략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침략이 아니다'는 다모가미의 망언까지 최근에도 일본 정계 요인의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1978년 도조 히데끼 등 A급 전범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사에 옮겨진 이후 거의 매년 내각의 각료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줄지어 참배함으로써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다.

21세기는 흔히 '아시아 태평양시대'라고 부른다. 일본이 어떤 면모로 21세기를 갈 것인가, 즉 평화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다시 군국주의로 가는가는 일찍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는 모두 중요한 문제이다.

역사를 정시(正視)하는 것이 한일 양국 관계의 우호적인 발전의 기초다. 한국민은 일관되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문제로 또다시 한국인의 감정이 끓고 있다. 역사가 교과서다. 일본은 역사를 거울로 삼아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기를 바란다. 〈서강정보대학 교수〉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嚴父慈愛 교육이 올곧은 아이 만든다

박 사 규

오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랑의 달'이라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매년 이때 쯤이면 하곤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오월 가정의 달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 지방 이곳 저곳에서 축제가 한창이다. 어린이들의 큰 꿈을 키우기 위한 특별 잔치, 어버이들을 위한 경로행사 등 풍성한 행사들이 이곳 저곳에서 열리는 훈풍이 넘치는 계절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고 많은 날들이 단 일회성 행사로 끝나 버리고 끝난 후에는 언제 그런 날들이 있어냐는 듯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마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이런 좋은 행사들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미풍 전통의 바톤을 이어받는 행사로 이어져 우리 가슴속 깊이 체질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뼈대있는 교육은 일회성 낭비 교육이 아닌 전통의 '엄부자애'(嚴父慈愛)의 규율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가정 교육이어야 한다.

엊그제 식당에서 옛 동지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던 찰라 옆 자리에서 식사를 끝낸 부부의 한 자녀가 식탁 위를 넘다들며 소란을 피우기에 주의를 주었다. 그랬더니 참견하지 말라면서 아이의 기를 죽인다고 눈을 부릅뜨고 따지는 젊은 부모를 봤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현실인가'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이만 사랑하고 남의 아이는 어떤 일을 하던지 못 본체 눈감아 버리는 세태는 사라져야 한다. 내 아이건 남의 아이건 칭찬 할 것은 칭찬하고 꾸중 할 것은 꾸중해 주는 아름다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들이 어려서 교육을 받을때는 수염교육이라고 해서 수염을 기른 아버지께서 기침만 해도 그 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동자세로 서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는 서당식 교육이었다. 오늘날 가정 교육에서 가장의 권위와 역할은 땅에 떨어지고 어머니의 인자함과 자애로움도 멀리가고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세태로 변해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속에 이제는 학교도 학생들의 인격을 최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학생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학부모 ,선생님들의 뜻을 충분하게 반영해야 하고, 사랑으로 지도하고 '엄부자애'의 정신으로 훈계해야 한다. 학생들도 학생의 신분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학생다운 모습을 지니면서 순종 할 것은 순종하고 학생의 본분을 떠나 지나친 행동을 한다거나 도를 넘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엄부자애의 근본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자녀 교육을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 되어지기를 바래 본다.

엄할때는 매우 엄하게 교육을 시키고 자애로울때는 한없이 부드럽게 가정 교육을 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잘잘못을 가려 지도해주는 아름다운 사회 풍토가 조성 되기를 바란다.

농부가 매일 새벽 이슬을 털고 논밭으로 나가 농작물을 어루만지며 '혹시 물이 부족하지나 않나' '병충해는 없지 않나' '거름이 부족하지는 않나'하고 농작물을 사랑으로 가꾸어 갈때 가을에 큰 수확의 기쁨을 맛 보듯이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엄하면서도 준엄하게 어머니는 자애로우면서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엄부자애'의 교육이 이루어져 바르고 올 곧게 우리 아이들이 5월의 따스한 햇살처럼 밝고 맑게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광주극락초등학교장〉

자원봉사가 일상화 되는 시스템 갖췄으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부와 자원봉사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열린 자원봉사 운영 시스템 관련 회의에 초청받아 갔었다. 거기서 보고들은 LA의 자원봉사 운영시스템은 참으로 부럽고 놀라웠다.

우리가 방문한 곳 중 한곳은 지체부자유자 휴식공간이었다. 시에서 모든 경비와 편의를 제공하는 이곳에서 지체부자유자들은 누구나 편히 지낼 수 있었다.

LA는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한 달에 서너 번씩 정기적으로 조를 만들어 찾아와 같이 놀아주고 식사도 같이하며 이들의 손발이 돼준다고 한다. 그리고 자칫 외로워할 수도 있는 이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며 훌륭한 대화상대가 되어 주기도 한다.

그 어떤 물질적인 봉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곳에서 만난 한 60대 아주머니는 23년 동안 빠놓지 않고 그 지체부자유자센터를 찾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타지역에 살고 있는 자기의 아들딸도 그곳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 모두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러웠다. 우리 광주, 전남북도 이 정도로 할 수는 없을까.

▲이수연·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5·18 유품들, 언제까지 수장고 신세인가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무참히 살상된 희생자들의 품에서 나온 태극기, 시계, 노트, 총알 등 유품 221점이 15년째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못한 채 수장고에 방치돼 있다. 5·18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해 줄 가장 확실한 흔적이자, 광주민중항쟁의 상징인 이들 유품이 전시공간이 없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18 기념문화센터에 따르면 유품들은 지난 1997년 5월 구 망월묘역에 있는 유골들을 현재의 국립 민주묘지로 이장하기 위해 감정에 나서면서 발굴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유품들은 당시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됐다가 5·18 기념문화센터 수장고에 옮겨져 지금까지 사장되고 있다.

5·18의 도시 광주에 귀중한 유품들을 전시할만한 유물전시관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정부와 광주시, 5·18 관련단체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는 1997년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나머지 예산 5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5·18이 국가기념일로,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5·18묘역이 국립묘지로 승격된 마당에 예산 타령만 해온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광주시와 5·18 관련단체가 유물전시관을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요구하고 정부 역시 국가 예산을 지원해 이미 건립했어야 당연한게 아닌가. 정부와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유물전시관 건립과 유품 전시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훼손돼 가는 유품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와 인권, 평화의 횃불을 높이 들며 피로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룬 영령들에게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물가도 못 잡으면서 '民生' 말할 수 있나

물가고(高)로 인한 서민들의 신음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가 진정될 기미는커녕 서민 가계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료 인상을 신호탄으로 공공요금까지 줄지어 오를 전망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2%, 4.6%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억제선 3%를 이미 뛰어 넘는 것으로, 물가 고공행진이 지난해 4분기 이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소비자 물가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식료품 값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찜질방 등 서비스 가격은 인상률이 두자리 수를 넘은 지 오래다. 실제로 요즘 대중 음식점에서 5000원 이하의 메뉴를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문제는 물가급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이달부터 평균 4.8% 인상했다. 여기에다 전기요금도 상반기 중 인상될 예정이어서 공공요금의 인상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시내버스·지하철·상하수도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원가 압박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3일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자체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200억 원을 이달 중에 관련 시·도에 배정한다는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4·27 재보선에서 민심이 현정권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서민·중산층의 경제난이었다. 특히 물가 폭탄은 가계를 한계상황으로 몰고 있어 밑바닥 민심은 최악이다.

정부는 구호가 아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생경제는 소홀히 하면서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의 정책을 고집해선 현 정권의 레임덕은 앞당겨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無等鼓

도덕적 해이

프랑스왕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1791년 혁명의 불온한 기운이 감도는 파리 탈출을 감행한다. 그들은 불안한 탈출의 와중에서도 12마리의 말이 끄는 특수 마차에 화장도구와 가구, 변기 등 각종 생활용품을 가득 채워 평소의 화려한 생활을 이어간다.

일가족 5명과 7명의 하인이 함께 탈 수 있는 거대한 마차에, 수행하는 마차까지 대동하고 프랑스 국경으로 향하던 그들은 파리를 벗어나자마자 산책까지 하는 여유를 부렸다. 하지만 그들의 탈출은 동전에 새겨진 초상화를 보고 루이 16세를 알아본 가게 점원에 의해 막을 내렸고, 2년 후 성난 파리시민들에 의해 길로틴에서 처형당하게 된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도 반정부 시위가 민중봉기로 돌변한 1989년 크리스마스에 부인과 함께 헬기로 탈출하다 쿠데타군에 붙잡혀 즉결 총살형을 당했다.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기반 삼아 한 시절을 호령했던 인사들 가운데는 마지막 순간 고국을 등지고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반 기업체의 사주가 재산을 몰래 숨겨두고 고의로 부도를 내는 것도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사례다. 싫건 좋건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국민이나 종업원들을 배신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에서 박 모 회장을 비롯해 주요 대주주와 임원 등이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박 회장은 영업정지 며칠 전 아내 명의의 예금 1억7000여만 원을 중도해지 하고, 영업정지 직후엔 자신의 임야에 친구명의로 근저당까지 설정했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사실이라면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존재 기반이 되었던 국가와 기업을 배신한 인사들의 말로는 대개가 처참했다. 그 누구든, 누린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